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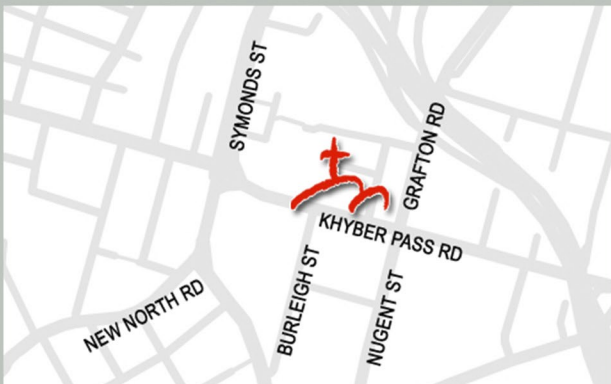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예배 후 6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교회 창립20주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시간 계획으로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장 차림)
  - 1) 말씀 사경회  
일시: 2019년 7월 19-21일 (금, 토, 주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2시 30분)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산들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 2) 추억의 사진전 (과거 사진, 현재 사진) 준비된 성도는 제출해주세요.
  - 3) 선행 인물을 추천받아 선행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추천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용, 대상, 일시 등을 기록)
4.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5.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7일(주일)~7월 9일(화) 장소: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주제 : ACTS29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
6. 다음 주일은 공동체 학습 성경공부 (TEE) 수료식이 있습니다.
7.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7월 사역일지 및 예배안내]

7일(주일) TEE 성경공부 수료식	21일 (주일) 창립주일
12일 (금) 금요 저녁기도회	31일 (수) 공동체 주관 수요 예배 (차드)
19(금)-21(주일) 말씀 사경회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6/30  
21권 26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b>주일예배</b>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15:11-13		인도자
■ 찬송	28장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75장		다같이
대표기도	-----		정관영 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15:11-24		인도자
찬양대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아버지의 낭비		이태한 목사
성찬식	-----		집례자
찬송	229장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b>수요예배</b>	오후 7시 30분	<b>청년예배</b>	오후 8시 15분
기도	김선화 집사	금주기도	유태림 형제
성경봉독	마가복음 2:23-28	다음주일	김효설 자매
설교	[사람과 안식일]		
	이태한 목사		
찬송	423장		
주기도	다같이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7월 7~9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기도 순서]  
7월 7일 (주일) / 이광희 장로  
7월 10일 (수) / 김영옥 권사  
7월 14일 (주일) / 김철재 집사  
7월 17일 (수) / 장연식 집사

[7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김철재, 허영순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안녕하세요?

2019년 전반기가 어느덧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7기 베트남 예수제자훈련학교 수업을 3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6월 8일, 31명의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주 목, 금, 토 훈련으로 주초에는 현지 사역으로 후반에는 학교 훈련으로 참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대학교, 초등학교, 선교팀, 가정들, 오시는 분들마다 도움 주러 왔다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받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감회와 눈물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또 나름 시간을 내어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짧은 일주일간의 방문이지만 그 여정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35명이 교육 차원에서 6월 초 다녀갔습니다. 학교와 부모님들이 참 좋은 훈련이 되었다고 다음 해에도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교회와 기업, 단체들 참 감사드립니다. 처음 한국을 떠나올 때 마음 참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요단강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한발 또 한발 내디디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아버지와 친밀감으로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제7회 현지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합니다. 젊은 부부 목회자 25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보면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해야 합니다, 25명의 목회자가 25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릴 것을 바라보면 흥분됩니다. 부흥을 바라봅니다.

주안에서 내내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지양

#### 기도 제목

1. 현지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 선교사 부부를 비롯하여 현지의 사역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1.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2. 사경회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성도들에게는 사모함이 있도록.
3. 서로 섬김과 칭찬을 먼저 하는 성도, 고난 속에도 믿음 잃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다솔이는 며칠 전부터 planning 하던 에세이를 오늘 새벽까지도 작성하고 있었다. 그 정도면 될 것도 같은데 고치고, 다시 쓰고의 반복. 결국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학교로 향해야만 했다. 나는 다솔이를 태우고 아침 시간, 짝 막힌 도로를 요리조리 곡예를 하며 빠져나갔다. 집에 돌아오니 나는 벌써 진이 다 빠져 있었다.

“서둘러라”, “밥 먹고 가라”라는 외침은 허공에 사라지고 나 홀로 우두커니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선을 다하려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에 가엾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구나!’

나는 얼마 전부터 ‘풍성한 생명’ 성경공부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집에 돌아오면, 같이 공부했던 한 분 한 분이 떠오르고, 때로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체’의 개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 하나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고, 하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었다.

어느덧 나는 뉴질랜드에 온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지금 나는 ‘뉴질랜드에서의 삶’이라는 에세이를 써 내려가고 있다.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 2년? 3년? ...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부가 신앙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듯,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며 고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 몸의 작은 지체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는 삶으로 한 줄 한 줄 채워가길 소망한다.

이혜경 집사

누가복음15: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